박원자의 母情佛心 24 삼척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



▶ 한줄 요약
삼천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은 25살에 혈액암이 발병해 시한부판정을 받았다. 방황하던 중 출가했으며, 월정사서 행자로 지내며 기도하던 중 몽중가피를 얻어 병을 완치했다. 이후 동은 스님은 수행자가 돼 집을 찾았다. 이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공부에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면 부처님과 부모에게 모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곳도 문 닫으면 무문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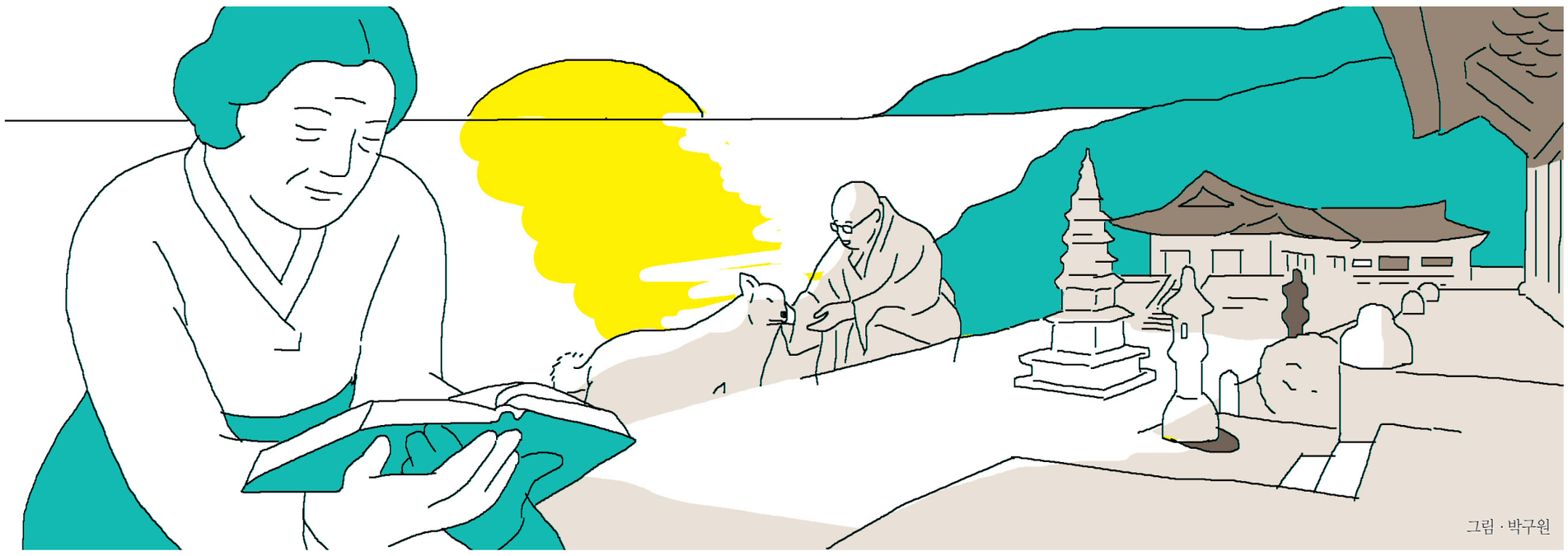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언제 보아도 진실한 사람이 있다.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정도로 언행이 진실한 사람이 있다. 삼척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젊으셨을 적에도 그랬고 예순이 넘은 지금 뵈어도 잘 생기셨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그 한결같은 진실함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진실함이 아름다움을 만들고 세상의 미남, 미녀를 만든다고.

10여 년 전, 동은 스님이 펴낸 〈무문관 일기〉를 읽고 울어버린 기억이 난다. 스님의 진실함이 고스란히 전해져왔기 때문이다. 스님은 100일간의 처절한 '무문관 수행' 을 이야기 하면서 '진실함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한다' 고 했고, 그 진실함은 간절함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동은 스님이 건강한 몸으로 군대에 다녀와 사회생활을 야심차게 시작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현기증으로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갔다. 그 무렵 어지럽고 간혹 코피를 쏟아도 일을 무리해서 그런가보다 했다. 진찰을 끝난 의사가 혈액암이라고 했다. 길어야 2~3년 정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생겨났지만, 당시는 골수이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거기다가 고액의 비용이 드는 일이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병고는 한 청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겨우 스물다섯이었다. 방황이 시작되었다.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이 들고 죽어야 하는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다. 아니, 억울했다. 일을 그만두고 길을 걷고 또 걸었다. 목적지 없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노숙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어느 깊은 산골이었고 날이 어두워져있었다. 물어물어 한 스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토굴에 찾아들었다. 주인이 출타한 곳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다음날 새벽, 여명에 비춰진 시 몇 구절을 발견했다. 전류가 흐르듯 한 청년의 가슴으로 휘몰아쳐 들어왔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하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한방 맞은 듯 '소식' 이 왔다. 막연함으로 둘러싸였던 방황이 한 순간에 '출가' 로 정리되었다. 출가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 이 병을 있게 한 연유를 풀어보기로 했다. 공부해서 이 문제가 풀리면 다행이고 풀지 못한 채 죽더라도 덜 억울할 것 같았다. 그렇게 '생사' 라는 화두 하나가 단단히 가슴에 박혀 들어왔고 출가 준비를 위해 의령 집으로 돌아왔다.

출가하던 날 새벽,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한 통을 마루에 올려놓고 절을 올렸다. 장남으로 태어나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출가하는 아들을 용서해달라는 편지였다. 아홉 번의 절을 올렸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에 각 세 번, 그리고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찾아뵙지 못할 것을 생각해 세 번의 절을 올렸다. 마지막 삼배는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지 몰라 미리 절을 드린 것이기도 했다.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많이 흘렀다. 걱정하실까봐 발병 소식을 함구했었다. 시골에서 평생 5남매를 키우느라 농사짓고 이 동네 저 동네 행상하며 고생하신 어머니였다. 모범생에 착하기만 했던 장남이 난데없이 출가를 하겠다고 집을 나간 것을 아시고 충격을 받으시리라.

월정사에서 행자생활이 시작됐다. 처음 도착한 날, 들어간 곳이 법당 뒤 삼성각이었다. 무슨 인연이었을까, 절을 올리고 보니 불전함에 '불교병원 건립모금함' 이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저절로 주머니에 손이 갔다. 가지고 있던 전 재산, 100원 짜리 동전 하나를 털어 넣었다. 전 재산을 시주하며 부처님께 약속을 드렸다.

"운명의 그물에 걸려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출가 수행한 공덕으로 병이 나으면 남은 생은 덤으로 여겨 아프고 힘든 중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바쁜 틈에도 짬을 내어 기도했다. 간절했다. 살아나야 했다. 그 간절함에 운명이 손을 들었다.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리신 것이다. 삼성각에서 '약왕보살' 을 부르며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앞이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 무릎을 꿇었던 약왕보살님이 일어나 걸어와 살아있는 눈빛으로 미소 지은 채 이마에 손을 얹었다. 온몸이 고압선에 감전된 듯 떨렸다.

희열이 온몸을 감싼 가운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떴다. 깜깜한 행자실에 온몸이 젖은 채 앉아있었다. 문을 열고 나가 팔각구층석탑 앞 약왕보살님께 삼배를 올렸다. 그렇게 몽중가피를 실감한 순간, 삶을 송두리째 위협했던 병이 손을 들고 물러갔다.

> **제대 후 갑작스런 혈액암 발병**
> **시한부판정에 방황하다가 출가**
> **월정사 행자생활하며 몽중가피**
>
> **완치 후 스님돼 만난 어머니는**
> **"게으르면 부처 · 부모에게 죄"**

그 후 스님은 법상에서 혹은 절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극하면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있다' 고 설한다. 간절함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절절히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죽음의 경계에서 벗어나 수계를 하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았다. 수행자로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이며 안심시켜드리고 싶었다. 해진 저녁나절 불쑥 나타난 아들을 보고 부친은 가만히 서 계셨다. 어머니는 수행자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방으로 모셨다. 그리고 집에 있던 자식들을 불러 절하게 했다.

"우리 큰 아들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으니 앞으로 수행자로 잘 예우해서 모셔야지요."

온 가족이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끝이었다. 어머니는 왜 출가를 했느냐, 힘들지 않느냐, 돌아오라는 소리를 일체 하지 않으셨다. 스님은 자식이 선택한 ' 현재 '를 철저히 수용하시는 지혜로운 어머니를 보면서 봉양해야할 부모님을 두고 떠난 장남의 미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한번 죽기 살기로 공부해보리라 다짐했다. 그래도 혹시 자식의 마음이 무거울까 걱정되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었을까. 하룻밤도 묵지 않은 채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스님,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해서 성불하세요. 공부에 게으르면 부처님께도, 부모에게도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세요."

출가 후 처음 찾아뵈었던 그날, 마당가에서 손을 잡고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은 수행자로서 삶에 이정표가 되었다. 또 다른 병고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20여 년 전, 동은 스님은 강진 백련사에서 무문관 수행을 했다. 무문관 수행은 생사를 걸고 용맹정진하는 치열한 공부다. 밖에서 문을 잠그기 때문에 누가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 밖을 나올 수 없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에서 화두 하나와 싸움을 벌이는 치열한 정진이다. 스님은 그 뒤 10년 쯤 지나 그때의 단상을 〈무문관 일기〉라는 책으로 출간했다. 그 책 '지금 당장 여기서 하고 싶은 것들' 이라는 제목에 이런 구절이 있다. 스님이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문을 활짝 열고 싶다. 맨발로 마당을 거닐고 싶다. 일직선으로 백 보만 걷고 싶다. 큰절 부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산과 들을 지나온 그리운 바람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고 싶다.'

100일 동안의 일기지만 스님의 출가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책이 출간되자 어머니께 한 권 보내드렸다. 아마도 어머니는 이 책을 읽고 출가가 무엇이며 아들이 어떻게 치열한 수행을 하며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병고를 이겨내며 살아왔는지를 알고 눈물을 흘리셨으리라.

어느 날, 낡은 고향집을 떠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스님이 안부 전화를 드리니 말씀하셨다."스님, 여기도 문 하나만 닫으면 무문관입니다."

"무문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스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든 둘이신 어머니는 하루 일과가 기도하는 것으로 꽉 채워져 있다. 불교방송에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경을 읽고 기도한다. 백일기도를 이어가며 끝나고 나면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고 아들 스님에게 묻는다. 작은 아들이 출가한다고 할 때 '잘 생각했다' 며 '동은 스님처럼 수행 잘해서 도를 이루라' 고 축하해준 어머니였다.

"강원 졸업하고 처음 도반들과 어머니들을 보시고 미얀마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 후 불교 국가를 순례할 때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어요. 저는 일 년에 몇 번씩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어버이날엔 용돈도 드리고 자주 안부 전화도 드립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내 몸도 있고 수행도 하는 것인데 외면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출가 후 죽 그렇게 해왔어요."

동은 스님의 수행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저 따뜻한 효심인 것 같다. 아들 스님이 지어드린 선덕화(善德華)라는 법명처럼 아름답고 덕스러움으로 삶을 꽃피우고 계신 송점수 여사. 아들 셋 중에 둘을 출가시켰으니 복덕을 갖춘 대보살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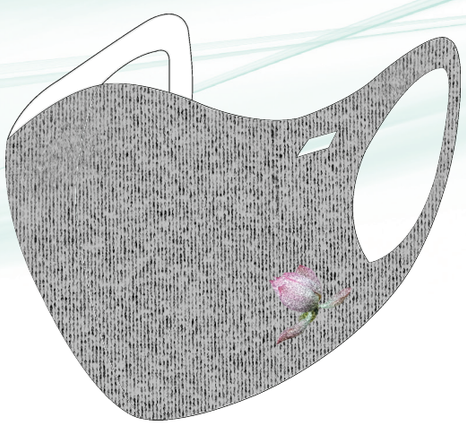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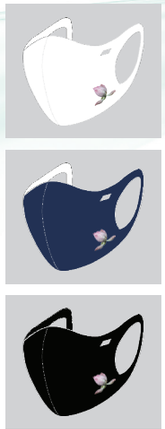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 항균 & 소취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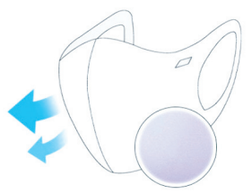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Antibacterial 항균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Fast Drying 빠른건조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